

## 다이나카노코미나미 유적 (국가사적)



다이나카노코(大中湖)를 간척하는 공사 도중 발견된 야요이시대의 농경 군락의 유적입니다. 유적에서는 논이나 수로의 흔적 외에도, 경작에 사용된 갖가지 목재 농기구 등이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다이나카노코미나미 유적에서 출토된 목재농기구

## 효탄야마 고분 (국가사적)



효탄야마 고분은, 4 세기에 키누가사야마 서쪽 기슭의 작은 산등성이를 이용해 만들어진 전방후원형 고분입니다. 전체 길이는 136m이고, 시가현에서 가장 큰 고분입니다. 꼭대기에는 수혈식(竖穴式) 석실이 3기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는 청동 거울이나 철제 무기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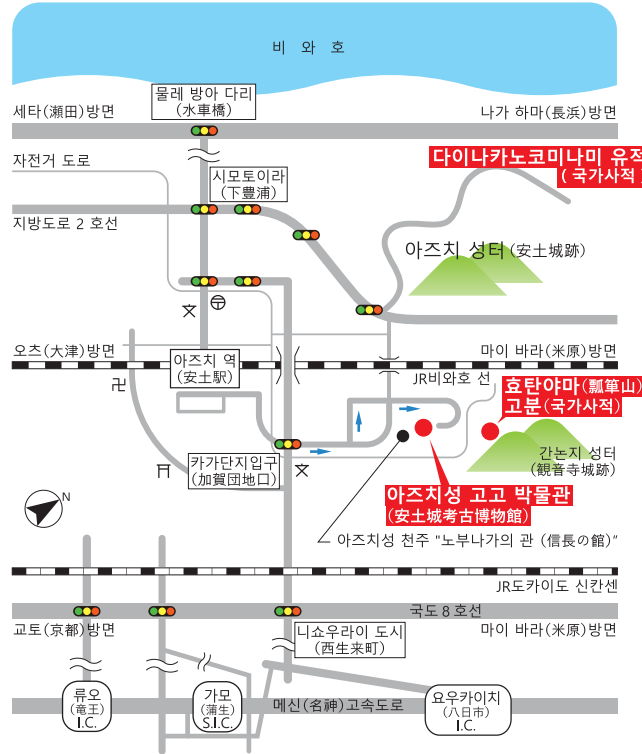


효탄야마(瓢箪山) 고분의 수혈식 석실 복원 모형 (실물 크기)

## 이용안내

입장료는 전람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내관 시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접해있는 노부나가의 관「信長の館」도 이용할 수 있는 입장권도 있습니다.

초·중학생, 장애인 및 시가현에 거주하고 계신 65세 이상의 손님은 무료입니다. (신분증 지참) 단, 특별전은, 초·중학생 및 시가현에 거주하고 계신 65세 이상의 분들도 유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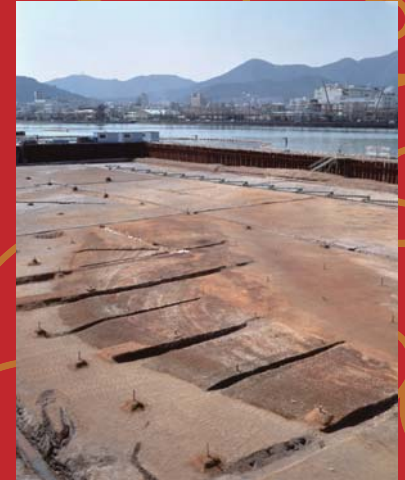
- JR비와호 선「아즈치 역」에서 도보 25분
- JR비와호 선「아즈치 역」에서 자전거 렌트 10분
- 평일은「아즈치 역 남쪽 광장」에서 버스로 14분 (하루에 4편)
- 메신(名神)고속도로「가모(蒲生)S.I.C.」에서 자동차로 25분
- 메신 고속도로「류오(竜王)I.C.」또는「요우카이치(八日市)I.C.」에서 자동차로 30분
- 국도8호선 니쇼우라이(西生来)교차점을 경유해, 카가단지입구(加賀団地口) 교차점에서 우회전

발행 : 시가현 박물관 활성화 추진위원회  
편집 : 시가현립 아즈치성 고고박물관

TEL. 0748-46-2424 FAX. 0748-46-6140  
URL <http://www.azuchi-museum.or.jp>  
e-mail [gakugei@azuchi-museum.or.jp](mailto:gakugei@azuchi-museum.or.jp)

平成29年度 文化庁 地域の核となる美術館・歴史博物館支援事業  
Supported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Government of Japan in the fiscal 2017

# 선사시대호수 주변의 문화



아와 즈(粟津)호수 바닥 유적에서 발굴된 패총 (시가현 교육위원회에서 제공)



오오이와야마(大岩山) 유적 출토 동탁

시가현 박물관 활성화 추진위원회  
시가현립 아즈치성 고고 박물관

조몬시대 [기원전 약 13,000~800년]

## 수렵과 채집

고대 사람들의 활동의 흔적이 비와호의 주변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대 사람들이 생활했던 흔적이, 비와호의 수면 아래에서 발견된 유적은 100여 개에 달합니다.

아와즈 조개 더미는, 비와호의 세타(瀬田)강의 출구 근처에 있는 세계 최대의 민물 조개 더미입니다. 이 조개 더미 안에서 발견된 조개껍데기나 기타 유기 잔존물, 그리고 인공 유물은 약 5000~5500년 전의 조몬시대의, 호수 주변에서의 수렵, 채집 사회의 생활방식에 대한 풍부한 정보원이 되고있습니다.

조몬인들은, 조개(대부분 민물조개)를 먹은 후, 그 주변에 조개껍데기를 버렸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의 조개 더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조개 더미에는 조개껍데기 외에도 동물이나 생선의 뼈, 식물의 잔해, 토기 등 많은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공 유물로는, 귀걸이, 나이프, 그물의 추 같이 다양한 도구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아와즈 조개더미에서 출토한 동물이나 식물의 잔해는, 당시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에 관해 알기 위한 귀중한 자료입니다.



하늘에서 본 아와즈 유적 (시가현 교육위원회에서 제공)



아와즈 유적의 도자기와 석기

야요이시대 [기원전 약 800~기원250년]

## 농경의 시작

농업에 기초를 둔 문명은, 일본열도에 있어서 비교적 새롭게 출현한 것입니다. 야요이시대에는, 중국과 한반도에서 유입된 농경 기술에 의해, 비와호의 주변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층 사회가 만들어지고, 호수나 하천 유역이 근방의 지배자에 의해 다스려지게 된 것은, 쌀 생산과 토지이용의 통제를 필요로 한 결과입니다.

야요이시대에는, 많은 농기구가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비와호주변에는, 이러한 목재 도구가 이탄층 속에서, 지극히 양호한 상태로 발견되는 일이 많습니다.

야요이시대에는, 청동제나 철제 도구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동탁(銅鐸)은 야요이시대에 제조된 종 모양의 청동기로, 그 원형은 한반도에 있었다고 추정되지만, 일본열도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했습니다. 동탁은 제사에 쓰인 악기입니다. 안 쪽에는 청동이나 나무, 혹은 석재로 만들어진 제즈[舌]를 끈으로 매달아, 몸통 부분이나 제즈 자체를 흔들며, 몸통 안쪽 면에 있는 돌출부와 접촉시켜 울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동탁은 약 500개가 있습니다. 시가현 야스시(野洲市) 오오이와산(大岩山)에서 메이지 14년(1881년)에 14구, 쇼와 37년(1962년)에 10구가 출토되었습니다.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있는 1881년에 발견된 동탁 중 하나는 높이가 135cm로 일본 최대 사이즈입니다.



야요이시대 경작의 모습



시모마가리(下鉤) 유적 출토 소 동탁

고분시대 [서기 약 250~600년]

## 정치권력의 탄생

고분시대란 일본에서 사람들의 계급 분화가 더욱 발전해, 킨키(近畿)지방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정치권력이 탄생한 시대입니다. 일본 열도 각지에서, 권력자를 안치하기 위한 고분이 권력의 상징으로써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분 안에는 시체와 함께 청동거울이나 무기, 장식품 등 많은 부장품이 함께 바쳐졌습니다. 고분의 주위에는 원통형을 비롯한 각종 토용이 나열되었습니다.

시가현에서 가장 거대한 고분은, 오우미하치만시(近江八幡市) 아즈치쵸(安土町)에 있는 효탄산고분(瓢箪山古墳)입니다. 고분시대 전기에 세워진 고분입니다. 이 고분은 전방후원형을 하고 있어, 전체 길이는 약 136m입니다. 고분 꼭대기 부분에는 3기의 수혈식석실이 만들어져있고, 그 안에는 청동거울이나 철제 무기등이 출토되었습니다.

고분시대에는 대륙에서 말이 유입되어, 권력자의 고분에는, 철로 만들어진 마구(馬具)류 등도 부장품으로써 묻히게 되었습니다. 릿토시(栗東市)에 있는 신가이(新開)고분은, 철제의 마구나 무구가 많이 출토된 고분으로써 알려져 있습니다.

고분시대 후기가 되자, 이전에 비해 매우 많은 고분이 세워집니다. 이 시기의 고분 안에는 일반적으로 횡혈식석실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전의 고분은 권력자 한 명만의 안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가족이나 자손도 같은 석실 안에 안치되게 되었습니다.



각종 토용



신가이(新開) 고분 출토 철제 투구와 갑옷